

## 엔딩 A [M16 수사관]

미술관 앞 공원을 빠져나온 곳, 주차 공간에 세워진 대형 바이크 위에 【감정사】가 올라타 액셀을 세차게 밟으며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대로라면 완전히 놓치고 말 것이다!

그때, 너희 눈앞에 바이크 한 대가 멈춰 섰다.  
몸에 딱 밀착되는 여성용 라이더 수트에 한눈을 빼앗기고 있는 사이, 헬멧의 페이스 가드가 올라간다.  
“타!”라고 다급하게 외친 이는 미인 여성 경찰이었다.

탐정 한 명이 바이크 뒷자리에 올라타고, 다른 탐정들은 자신들의 차로 추격하겠다는 뜻을 그녀에게 전했다.  
그와 동시에 바이크는 앞바퀴를 들어 올리며 급가속해 【감정사】의 뒤를 쫓는다.

“잠입 수사 중이었는데, 윗선에서 지원하라는 연락이 왔어.  
이걸로 만약 【랫테일】을 잡게 된다면, 다음엔 우리가 한 번 빚지는 거야.”

아침노을이 비치는 도로를 폭주하듯 달리는 두 대의 바이크.  
MI6 수사관인 미인 여성 경찰은 자동권총을 품에서 꺼내 탐정에게 건넸다.

“앞에 달리는 바이크의 번호판을 쏘!”

탐정은 달리는 바이크를 향해 총알 한 발을 발사했고, 정확히 번호판에 명중시켰다!

“휘유, 잘하네.”

그녀는 천천히 속도를 줄여 길가에 바이크를 세웠다.

“너무 깊게 개입할 수는 없거든. 여기서 작별이야. 실력 좋더라, 탐정님.”

그녀는 바이크를 180도로 돌려세운 뒤, 왔던 길을 따라 맹속도로 되돌아갔다.  
조금만 더 가면 다른 탐정이 탄 차량과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0| PDF를 닫아 주세요.)